

# 가을 향기 담은 '영산강 코스모스길' 인기몰이

극락교~승촌보 갯길

광주시, 20km 구간에 조성

역새도 만발 관광객 입소문

광주시가 공들여 조성한 코스모스 길 (극락교~승촌보 갯길)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가을 추억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변에서 자생하는 역새와 어우러지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추억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도의 젓줄' 영산강을 따라 이어지는 극락교~승촌보 갯길에 형형색색 코스모스가 꽃을 피워 가을 정취를 안겨주고 있다. 연방 꽃망울을 터트리는 코스모스 길은 무려 50리(20km)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도 이처럼 긴 코스모스 길은 드물다고 한다.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가 지난 2015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꽃길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음에 따라 구간을 점차 늘렸다. 애초 8km 구간에 코스모스를 심은 뒤 지난 2016년부터 20km까지 확장했다.

올해는 7월부터 제방 갯길(폭 1m 안팎)에 종자 200kg를 파종하고 물대기, 제초작업, 밀식 솎아주기, 순지르기 등 유지 관리하면서 아름다운 꽃길이 완성됐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앞다퉀 꽃을 피우기 시작한 코스모스는 10월 중순께 만개, 역새와 어우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모스 꽃길이 조성되면서 극락교~승촌보 구간은 '삼색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 열병식 하듯 끊임없이 이어지는 코스모스, 바람에 흔들리는 역새, 수생 생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코스모스 길에 입소문 타면서 추억을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가 극락교~승촌보 갯길에 조성한 코스모스 길.

(광주시 제공)

사전에 담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자전거 마니아들은 승촌보 둔치에 자전거 길이 있음에도 굳이 코스모스 길로 라이딩 코스를 잡고 있다.

시민 강화자(여·2·남구 노대동)씨는 "지난해에도 코스모스 길을 찾았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올해도 다시 찾게 됐다"며 "도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도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장소"라고 말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개화 후 열매를 맺는 11월에는 꽃씨를 채집해 내년에도 시민들이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코스모스 길로 라이딩 코스를 잡고 있다.

코스모스가 꽃을 피운 극락교~승촌보 구간은 토양이 적박하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이 구간에 흙을 보태고 비료를 주는 것은 물론 잡초 제거 등 코스모스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정기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등 살

뜰하게 관리했다고 한다.

광주시 푸른도시사업소 관계자는 "영산강 코스모스 꽃길은 아름다운 강변과 은빛 역새 등 자연까지 더해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가족·친지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정성껏 가꾼 꽃길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전거, 차량 이용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라오스·네팔 의료진, 의술 배우러 광주로

市·봉사단체, 환자 초청 치료

정해 시행한다.

광주시에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광주의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해외 의료진을 광주에 초청해 치료 및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라오스 의료진 2명이 14일 입국해 2개월 동안 광주시내 한 병원에서 연수를 받는다. 이어 네팔 광주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의료진 1명도 광주 한 병원에서 선진의료기술을 익힐 예정이다. 또 자국 의료기술 부족 및 경제사정 등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도 광주에서 치료를 받는다.

시는 구순구개열로 입천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필리핀 한 어린이 환자도 심장병을 앓고 있는 네팔 어린이 환자를 초청해 치료를 하기로 했다. 이들 환자는 진료 이후 수술 등을 결

정해 시행한다. 이번 연수와 치료는 수년간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사단법인 선한영향력·사단법인 광주공동체·사단법인 광주국제협력단'에서 의료 지원을 결정,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3개 사단법인에서 연수비와 치료비를, 광주시는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의 교통비 및 체류비를 지원한다.

시는 또 요보호시설 청소년 13명을 11월께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로 해외자원봉사활동을 보내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해외봉사활동을 접할 수 없었던 요보호시설청소년들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희망나무와 함께 봉사활동을 벌이면서 광주공동체 정신인 나눔과 배려를 직접 체험,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에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 담당 변호사(오른쪽)가 방문객을 상담하는 모습. (광주시 제공)

## 광주시 인권작품 공모전 22일까지 연장

이메일 접수

광주시에 장기간 추석 연휴를 감안해 '제5회 인권작품 공모전' 접수를 당초 9월 29일에서 오는 10월 22일까지 연장해 진행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작품 유형은 '인권신문'으로,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가족부 등 4개 부문을 접수한다.

인권신문은 사회 현안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대안을 제시하는 인권수기, 직접 촬영한 사진, 인권도서·영화 후기, 봉사활동 이야기 등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인권 사례나 고부간 갈등극복 사례, 명절중추근

극복이야기, 남녀 구분 없는 가사 분담, 인권가훈 만들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와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인권지향성, 창의성, 인권교육 및 홍보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12편을 선정, 총 300만원 상당의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062-613-2065) 또는 민주인권포털(www.gjhr.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이메일(gjhrp@korea.kr)로 접수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직장맘 위한 근무환경 만들기

광주시에 공공기관의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6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성 위한 공공기관 일·가정양립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한 관련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중이다.

시 행정지원과·예산정책관실·일·가정양립지원본부 등 관련 부서가 각 분야별로 협업체를 구성해 근무환경, 조직문화 등 시가 선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과 가족친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현장 캠페인을 갖기로 했다.

시는 임신·출산·육아 등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로 인한 직장맘의 고통 해결과 권리 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가사육아 교실', '어르신 대상 '요리하는 청춘'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황인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효율적인 근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市 '무료법률상담실' 7년째 든든한 울타리

광주시에 올해로 7년째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 말까지 41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지난 2015년 242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69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상담 내용은 임대차·상속·이혼 관련이 가장 많았다. 무료법률상담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6

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생활법률, 행정심판 소송 등 모든 분야 법률문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광주시에서 법을 모르거나 형편이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법률고충 해결을 돕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히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 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2억+부동산과 교환 가능)

### 나주, ㄷ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조정가)

### “급 매”

###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주인직매 010-3605-5000